

##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966\_김인기(金麟基) 지음\_22.5×71.5cm



1966년 서원의 재복(齋服)을 새로 장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성된 기문이다. 비유은 우제동(禹濟棟), 안흥진(安興眞), 김호준(金鎬俊) 등이 마련하였다. 기문은 김인기(金麟基)가 작성하였다. 1967년 작성된 「무성서원제기개수기」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武城書院記

庸曰齋明盛服以承祭祀洋洋乎如在其上如在其左右夫祭致其嚴精潔盛服能致如在之誠凡院祠必有齊服不欲以燕服行祀所以致其敬也我武城書院全道士林所尊奉而凡俱完備降自季世人心澆薄無有表誠者故徒想不已幸茲禹濟棟安興眞金鎬俊三君審院來曰以若至重賢院齊服如此敗(兩)尊嚴之義果安其非士林之恥耶敢請某等雖微力自當裁呈矣遂鳩力而成新服服新精潔而薦尊所謂如左右必至矣噫諸君以不贍之財能敬而獻忱其慕賢衛道之心果何如人人皆以此爲心士林烏有無人之患乎院任金炯基君囑不佞記余亦嘉尙書此以示後之人

丙午三月日道康金麟基記

執綱	權寧玉
掌議	金東柱
色掌	李敦冕
本孫掌議	金淙述
本孫色掌	宋正燮
本孫有司	金東基
原	

#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중옹(中庸)』에 “재계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제사를 지낼 적에 그 엄숙함을 지극히 하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갖추어 입으면 신령이 앞에 계신 듯이 하는 정성을 지극히 할 수 있다. 모든 원사(院祠)에는 반드시 재복(齊服)이 있으니, 연복(燕服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공경을 다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무성서원은 온 도의 사람이 우러러 받드는 곳이건만 갖추어 완비하는 것이 세상이 말세가 되고부터 인심(人心)이 각박하여 정성을 드러내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갓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행히 우제동(禹濟棟), 안흥진(安興眞), 김호준(金鎬俊) 세 사람이 서원을 찾아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지극히 귀중한 서원의 재복이 이와 같이 해지고 누추하니 존엄의 의리상 어찌 사람(士林)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청하건대 저희들이 비록 미력하나마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만들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힘을 모아 새로운 재복을 만들었다. 새 재복을 입고 정결히 하여 제수를 올리니 이른바 좌우에 있어 반드시 이르는 듯하였다. 아, 세 사람이 넉넉하지 않은 재력으로도 공경스레 정성을 바칠 수 있었으니, 그 현인을 사모하고 도를 보위하는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사람들이 모두 이것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사람이 어찌 사람이 없을 걱정을 하겠는가. 원임(院任) 김형기(金炯基)군이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고, 나 또한 가상하게 여기기에 내가 이렇게 써서 후인들에게 보이노라.

병오년(丙午, 1966) 3월 일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 짓다.

집강(執綱)	권녕옥(權寧玉)
장의(掌議)	김동주(金東柱)
색장(色掌)	이교면(李敎畹)
본손(本孫) 장의	김종술(金淙述)
본손 색장	송정섭(宋正燮)
본손 유사	김동기(金東基)

끝[原]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